

# 광주·전남 12일까지 늦장마...폭염·열대야 꺾인다

### 최대 100mm 비...구례·곡성·장성 등 시간당 50mm 장대비 예상 가뭄 해소에 도움될 듯...13개 시·군 13일 만에 폭염특보 해제 수도권 같은 물폭탄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지역 수해 예방 필요

광주·전남에 12일까지 '늦장마'가 찾아오면서 폭염과 열대야도 한 풀 꺾일 전망이다. 이 기간 구례·곡성·장성 등 전남 북부지역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장대비도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장마전선(정체전선) 영향을 받아 전남 일부지역에서 10일부터 시작된 비가 12일까지 이어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는 2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전선과 가까운 장성·구례 등 전남 북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

은 내다봤다. 지난 2020년 홍수로 큰 피해를 봤던 구례·곡성에도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보돼 수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장마전선은 지난 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돼 서울에 10일 오후 6시까지 525mm 물폭탄을 쏟아부은 뒤 남하해 광주·전남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다만 광주·전남은 장마전선 영향권의 끝 부분에 걸치는 터라 '중부지방 물폭탄'처럼 폭탄비가 쏟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3일여 동안 비가 오면서 기온도 낮아져 기습을 부리던 '째뽤터위'는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완화됐다. 광주를 비롯해 화순, 장성, 구례 등 13개 시군은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13일만에 무더위에서 벗어났다. 11일 이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32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으며 7월 28일 이후 연속 13일째 이어졌던 열대야(밤 최저기온은 25도 이상) 현상도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장마전선 영향을 덜 받는 여수·광양·완도 등 전남 남부 10개 시군은 낮 최고 체감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폭염주의보를 유지했다.

광주·전남지역은 지난달 말부터 장마·태풍 등 요인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다.

광주는 올해 폭염 일수는 16일로 평년 15.8일을 넘어섰다. 지난 2019년 12일, 2020년 13일, 2021년 14일 등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많은 폭염 일수를 기록하고 있다.

무더위로 잠 못 드는 밤도 이어졌다. 올해 광주 지역에서는 총 21일 동안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역시 평년 14.8일보다 많았다. 최근 3년 중 열대야가 가장 극심했던 2019년 22일 기록도 넘고 있다.

연속 3일간 내리는 비로 극심했던 광주·전남 '가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광주 누적 강수량은 473.3mm로 평년 강수량인 762.9mm의 62.04%에 불과했다. 전남 또한 최근 6개월 간 누적 강수량이 506.8mm로, 평년 강수량(802mm)의 63.5%에 그쳤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 또한 49.4%에 불과해 평년(63.6%)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다시 치솟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12일 오후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기온이 31~34도로 올라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교원 징계 미이행한 유은학원 시교육청, 과태료 300만원 부과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유은학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유은학원 소속 동성고교 인건비로 지원된 재정결합보조금 2억30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 지난해 8월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나 학원 측은 징계를 하지 않았다.

유은학원 측은 재정결합보조금 2억3000만원을 시교육청에 반환했다.

앞서 시 교육청은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 교사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고려학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고려학원은 이를 납부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해당 교육청은 두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에 교원에 대한 징계 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또다른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600만원,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증기발생기 교체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 환경단체는 '157cm 돔 구멍' 4호기 졸속 보수 공사 중단 촉구

원자력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 교체를 마친 영광 한빛원전 3호기가 규제기관으로부터 가동 승인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를 마친 한빛 3호기의 입계(재가동)를 10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가 10일 한빛원전 앞에서 한빛 4호기 '졸속 보수, 조기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입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입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 한빛 3호기의 격납건물 내부환발 건전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기준 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다. 다만 상부 등에서 표면 녹 부위 1곳이 발견됐으나 모두 보수됐다.

검사 기간 증기발생기가 교체되면서 내부 세관(가스다관 관)이 부식에 강한 재질(인코넬 690)로 교체됐다. 원안위는 관련 배관의 용접검사와 세관 비파괴검사 등을 수행해 건전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업자가 증기발생기를 바꾸면서 격납건물 내부의 이물질 존재 여부, 배관 및 기기의 보존체 결상태, 도장재 상태 등을 점검해 격납건물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출력상승시험 등 10개의 후속 검사를 거쳐 오는 20일을 전후로 원자로를 100% 정상 출력 상태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는 6개 원전 가운데 4번째로 구축된 한빛 4호기에 대한 '졸속 보수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원안위로부터 보수계획 승인을 받고 조만간 4호기 공극(콘크리트 빈 구멍) 등을 보수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탈핵 단체들은 원안위의 보수공사 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빛 4호기는 최대 깊이 157cm에 이르는 공극이 확인되는 등 격납건물 부실시공 문제로 5년간 가동이 중지된 '문제' 원전인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보수공사가 나선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원안위는 공극 원인만 조사했다. 이는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부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한 뒤 보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규제기관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보수작업이다. 주민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 공사 내용을 설명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보수 공사를 거쳐 원안위 승인을 받은 뒤 이르면 올 11월 4호기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

## 선거구민에 수천만원 과일 선물 이승욱 전 강진군수 구속 송치

읍면장 등 공무원들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승욱 전 강진군수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재정비조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군수 등은 군수 시절인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한 현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 전 군수를 비롯해 12명이 공직자로 조사됐다. 이 전 군수와 비서실장을 제외하면 모두가 직업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일부 공무원들은 관용차로 과일상자를 선물한 뒤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주민들을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 현직 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이 전 군수가 증거 인멸에 나서서 정황과 범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농과대 동아리회원들 농촌 봉사활동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4H 동아리회원 15명이 10일 광주시 남구 대지동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사건인사이드

### "물건 팝니다"...매수인 나타나면 훔쳐 거래한 '예약제 도둑'

광주에서 '예약제 도둑'이 붙잡혔다. 거래가 활발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가슴기를 판다고 사진을 올려놓고, "제가 사겠습니다"하고 매수인이 나타나면 가슴기를 훔쳐와 거래하는 방식을 취한 20대 절도범이 경찰에 탐미를 잡힌 것이다. 이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장소는 다름 아닌 교회였으나 '장발장'과 달리 용서받지 못하고 교회와 경찰의 협공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북부경찰은 10일 광주시 북구 B교회에서 전자제품 등을 훔친(절도 등) 혐의로 A(26)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B교회에 수시로 침입해 비디오, 캠코, 가습기, 공기정정기 등 600여 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꺼번에 몽땅 훔친 것이 아니라 9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쳤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인 척하며 교회 물건들 촬영 중고사이트에 판매 사진 올리고 비디오·가습기 등 9차례 절도 교회·경찰 공조에 결국 덩미

교회 측은 지난 6일 공기정정기가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물건을 온라인 중고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점을 확인하고 교회와 입을 맞췄다.

A씨가 판매 의사를 밝힌 글에 아직 훔치지 않은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다시 교회에 물건을 훔쳐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교회 측에 신고를 당부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지난 9일 정오 무렵 스피커를 훔

치러 교회에 왔다가 교회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당 교회는 문이 잠겨 있지 않고 누구나 왕래할 수 있다는 점을 눈치채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신도인 척 수시로 교회를 오가며 교회 물건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라인 중고사이트에 올렸다. 판매 글을 보고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면 바로 그 물건을 훔쳐와 중고거래를 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이다.

A씨가 중고판매 물품으로 올려 놓은 네댓 개의 게시글에는 아직 훔치지 않은 교회 기타 등의 물건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인이 아닌 외부인이지만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특정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1266	1	북구 유림로 175, 114동 16층 1602호 [동일층, 상익] 52.89㎡ [오도은 1/2지분전부]	아파트	47,500,0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
2022타경 1655	1	북구 비엔날레로 82면적 41, 105동 1층 104호 [용복동, 용복아파트] 131.3182㎡	아파트	564,000,000	2022.3기준역320만원관리비미납상태
2022타경 3392	1	북구 북문대로 201면적 30, 101동 17층 1707호 59.77㎡	아파트	106,000,000	106,000,000
2022타경 63363	1	광산구 수동로 287, 109동 12층 1203호 [신항동, 신가부영아파트] 84.9873㎡	아파트	305,000,000	305,000,000
2022타경 64489	1	북구 무등로 282면적 60, 101동 8층 804호 [용복동, 용복아파트] 60.5404㎡	아파트	173,000,000	173,000,000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2856	1	동구 산수동 553-6 175.9㎡ [공유자장안역] 대 89/175지분 전부, 매각대상지 지상에 매각대상인 타인 소유 건물 [단총수역 49.58㎡, 단총량 23.14㎡, 단총면적 4.95㎡] 소재	대	37,044,0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제한
2022타경 65161	1	광산구 용동 582-11 178㎡ [묘요소재, 명지]	임야	10,502,000	경계불명하여 정확한 경계측량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65161	2	광산구 용동 582-8 476㎡	임야	24,752,000	24,752,00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2타경 2528	1	광산구 사암로 216면적 38-6, 2층 204호 143.98㎡	근린시설	617,000,000	공실상태
	2	광산구 사암로 216면적 38-6, 2층 205호 117.92㎡	근린시설	505,000,000	공실상태
2022타경 2740	1	북구 양말1로 50, 지하층 101호 344.32㎡	근린시설	722,000,000	놀이형시설 [이층]

[자동차, 중기]

2022타경 2887	1	사용면적지: 남구 형암길 9, 701동 504호 [동문동, 효천내천면사무지 7단지] 등록번호: 83도0243 차형: 그랜드스타렉스 최중용택일차: 2017.1.12	자동차	16,000,000	보관: 광주광산구 상연길 314-16, 수원컨테이너하우스
-------------	---	--	-----	------------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례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매수권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부담할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발영향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 공유자가 민사청구권 제 140조에 의한 우선매수권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전항되는 매각일 때 매수보증금의 미충족으로 상환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일 때 매수보증금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액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 매각기일 : 2022. 9. 1. [목] 10:00
- 매각장소 : 2022. 9. 1. [목] 10: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 매각방법

● 입찰방식에 비하여 기일당첨에서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액, 보증금 등 을 기재하고 입찰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부패 및 입찰행위 위법행위 일이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수권인 1회 1회(100명)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발행의 자기입찰 또는 반급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채권자를 제출한 문서(입찰-모집서)를 준비해야 합니다.